

# 식사 또는 휴식시의 편 무릎 세움 자세 관한 조사연구(1)

Study on one of knees is upside-bended, having a meal or taking a rest(1)

권 영덕

광주대학교 디자인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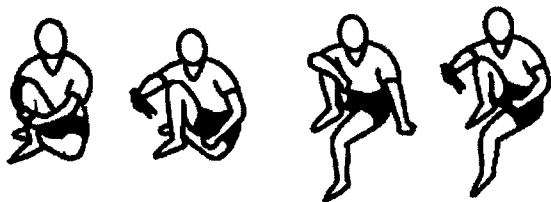
Kwon, Young-Duk

Division of Design, Gwangju Univ

• Key words: the pose which one of knees is upside-bended, meal, rest, evaluate a image

## 1. 배경 및 목적

필자는, 「현대한국의 주거공간에 있어서 식사시의 좌법과 그 채용 요인」 주1)에서 바닥에 직접 앉는 자세와 의자에 앉는 자세가 병존하고 있는 것과 의자에 앉는 자세 중에는 바닥에 직접 앉는 자세로 의자 위에 올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앉는 자세가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자세가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는 이상 그 변용이 불가피하여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단 기간내에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급변하는 시대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변화에 민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자에 앉는 자세 중 의자 위에서 바닥에 직접 앉는 자세로 올라 앉아 식사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편 무릎 세움 자세 주2)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실태를 명확히 함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영향에 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图 1】 편 무릎 세움 자세

## 2. 내용 및 방법

주요조사 내용은, 식사 또는 휴식시의 편 무릎 세움 자세를 중심으로 1)본인이 평상시 그 자세의 취하는 빈도와 신체적 편안 정도, 2)타인의 의식정도에 의한 그 자세를 취하는 빈도를 가족구성원과 식견이 없는 타인의 경우로 분류하고, 또한 가족구성원의 경우에 있어 그 대상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순위형제로 하였으며, 식견이 없는 타인의 경우에 있어 그 대상을 청년층, 장년층, 중년층, 고령층의 각각의 남·여로 하였다. 3)그림과 같은 자세로 식사 또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청년, 장년, 중년, 고령의 각각남자·여자를 봤거나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이미지

를 남성적, 친근함, 자연적, 편안함, 자유로움, 활기, 강력함, 개성, 대담적, 거침, 차가움, 성실, 위엄, 신뢰, 아름다움, 귀족적, 예의, 라고 하는 17개의 이미지 언어와 각각의 반대언어의 이미지 평가 등의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광주 광역시 20대 남·여를 대상으로 했으며 유효회답은 110명분이다.



【图 2】 관찰조사에 의한 편 무릎 세움 자세의 사례

## 3. 결과 및 고찰

1) 图3과 图4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식사 또는 휴식할 때에 편 무릎 세움 자세를 가끔씩 취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느끼는 편안정도는 긍정적 보통을 조금 웃돌고 있다.

2) 图5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편 무릎 세움 자세로 식사 또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는 빈도에 있어서 특정 세대별 또는 성별에 극한 되어져 있지 않고 각 세대 층에서 폭 넓게 고루 보여지고 있으며, 세대별을 불문하고 여성에 있어서 목격하는 빈도가 남성의 그것 보다 높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층보다는 장년, 중년, 고령에 있어서 그 차이가 조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3) 图6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식견이 없는 타인의 경우 경우에 있어서, 상대별을 불문하고 「편 무릎 세움 자세는 의식해서 처음부터 취하지 않거나 자세를 바꾼다」 라고 하는 항목이 타 항목에 비해 높고, 상대별에 따른 의식과 자세의 변화가 비교적 적고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사람이 가족일 경우, 상대별에 따른 의식과 자세의 변화가 적지 않다. 먼

저, 「편 무릎 세움 자세는 의식해서 처음부터 취하지 않거나, 자세를 바꾼다」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상대가 할아버지일 경우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순위형제의 순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취한다」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역으로 순위형제가 가장 높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순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圖6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편 무릎 세움 자세로 식사 또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이미지에 있어서 청년층 남성의 자유로움을 제외한 그 외의 남성층은 자연적, 편안함, 자유로움의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면, 모든 여성층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의 것은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조금 낮은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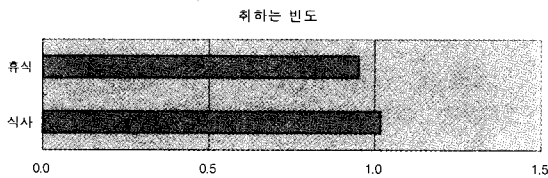


圖 3] 편 무릎 세움 자세를 취하는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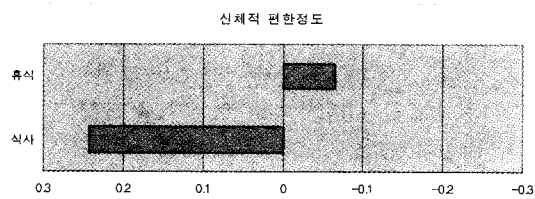


圖 4] 편 무릎 세움 자세를 취할 때 느끼는 편안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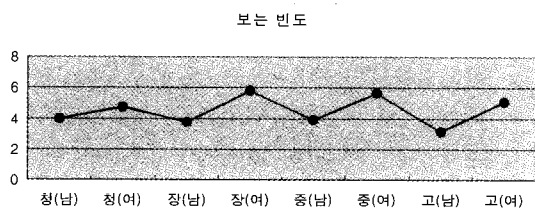


圖 5] 편 무릎 세움 자세를 취한 사람을 목격하는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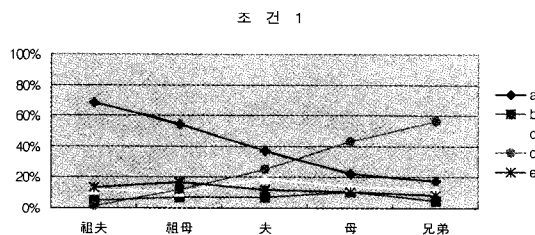


圖 6] 상대의 의식정도에 의한 자세를 취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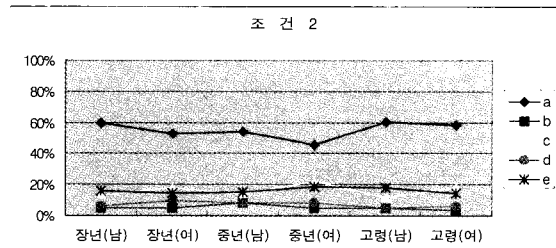


圖 7] 각 연령층별, 성별에 대한 이미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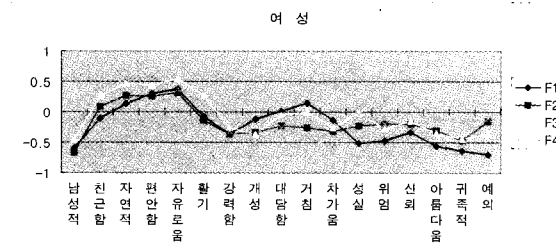


圖 7] 각 연령층별, 성별에 대한 이미지평가

#### 4. 결론

식사 또는 휴식할 때 편 무릎 세움 자세를 가끔씩 취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느끼는 편안함 정도는 보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빈도에 있어서 특정 세대에 극한 되어져 있지 않고 폭 넓은 세대 층의 남녀에서 고루 보여지고 있으며, 세대별을 불문하고 여성의 빈도가 남성의 그것 보다 높다. 가족구성원과의 동석 할 경우는, 가족구성원별 의식과 자세의 변화가 매우 큰 반면, 타인과 동석할 경우에는 상대별에 따른 의식과 자세의 변화가 비교적 적고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평가에 있어 자연적, 편안함, 자유로움의 이미지 언어에 대한 평가는 남성의 경우 부정적인 반면, 여성층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식생활을 비롯한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되어지며, 앞으로, 식탁용 테이블 및 의자의 디자인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요인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주1) 권 영덕 외2인, 현대한국의 주거공간에 있어서 식사시의 좌법과 그 채용 요인, 일본 인테리어학회 논문 보고집 10호 2000.03

• 주2) 골반을 바닥에 접하고 편 무릎을 세우고남은 다리를 접어 모은 자세.